

월요광장

2주기에 꾸린 송기숙교수 기념사업회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지난 12월 5일은 의인 송기숙 교수의 2주기였다. 그보다 사흘 전인 2일(토요일)에 많은 추모객들이 5·18 국립 묘지의 묘소에 모여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가신 지 벌써 두해째가 되었으니 세월은 참으로 빠르기만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송 교수께서 2021년 12월 5일 세상을 버리시고 해가 바뀐 2022년 봄호 '창작과 비평'이라는 계간지에 나는 '시대의 걸출한 의인을 보내고'라는 장문의 글을 송기숙 교수 영전에 바친 바 있다. 가누기 어렵던 슬프디 슬픈 추모사였다. 이제 2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올리고 이어서 경향의 많은 추모객들이 모여 의인을 위한 기념사업회를 이끌어가고자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였다. 회고담을 쓰려다.

수없는 금의환향' 등 읽기 편하고 재미가 철철 흐르는 중단편 소설의 작가였다. 학자로서 소설가로서 세상에서 큰 이름을 얻은 기록관자로서 독재시대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살아갈 처지였으나,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지식인의 사명감 때문에 그 화려하던 기록관을 모두 포기하고 독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민주투사이자 의인의 길을 걸었던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라고 송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설명한 내용이다.
1961년 육군 소장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를 주도했던 독재자였다. 무려 18년의 긴긴 세월, 우리 국민은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얼마나 신음하며 모진 세월을 보냈던가. 특히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괴물을 선포하여 국민들은 입과 귀를 닫고 손발이 묶인 모습으로 노예처럼 굴종만 당하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군사독재를 영속화하기 위해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일본의 교육적자를 모방하여 '국민교육헌장'이라는 반인간적 반교육적인 교육을 강요하던 일은 양심적인 인간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는 악독한 정치였다.
그러나 광복한 권력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에 대한 불평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1987년 6월 27일 송기숙교수는 전년대 10명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 11명의 교수 이름으로 교육헌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새로운 교육지표를 선포하였다. 이런 내용이 일본의 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독재정부는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억지 죄명으로 11명을 해직시키고 송 교수는 엄청난 고문을 받다가 구속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 무섭고 어두운 공포시대에 교육현

장에 반대하는 교육지표를 선언했으니 이는 캄캄한 밤중에 샛별이 반짝이듯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던 세기의 외침이었으니, 민주회복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준 위대한 거사였다.
1979년 재헌절에 형 집행 정지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투사가 되어 독재 타도에 앞장서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바로 이어지는 5·18 항쟁에는 내란죄에 걸려들어, 또 모진 감옥생활을 해야했다.
특히 5·18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뒤로부터 5·18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참으로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 만인이 인정하는 교수의 명예를 헌신적처럼 버리고 민주투쟁에 앞장서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불의 앞에 정의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희생을 감수할 용기를 지닌 사람은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송 교수의 소설이나 작품에는 의인의 정신을 풍부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의 역사관도 그러해서 알아 볼 수 있다. "민중이 자발적인 합의에 이르면 엄청난 힘이 분출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광주항쟁 때도 느낀 사실이지만 나의 민중사관에 대한 낙관론은 바로 이런데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녹두장군, 후기)
이제 송 교수의 민중사관을 이어가고 후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념사업회에 힘을 보태서 큰 역할을 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않는다. 언로가 막히고 검찰독재가 진행되는 지금, 송 교수의 뜻이 승리하도록 기념사업에 충실을 기하자.

수필의 향기

어느 마을 할머니들의 하루



박용수
수필가·동진여고 교사

안 들지도 않는다. 그러다 별 웃을 거리도 아닌데 웃음꽃이 만발한다.
속아서 시집안단다. 부자는 무슨 부자, 납득치만 한 땅도 없더란다. 하도 배가 고파서 밤에 몰래 전정 능주까지 갔는데, 출가외인이라고 아버지는 문도 열어주지 않더란다. 그 뒤로는 죽기 살기로 살면서 지금 전답을 일궈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난한 옛날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다. 이미 이야기 부자다.
토요일인데도 오전 7시 30분에 화순 읍내 병원은 문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은 75세, 빛바랜 환자 신상카드가 박물관처럼 뽁뽁하다. 오래돼서 모두 정겹다.
"근데 주삿값이 얼마예요?"
"그래? 늙어서 존 것도 있네? 양"
65살 넘으면 공짜라는 능주 덕 말에 똑같이 웃음꽃이 핀다.
"아 글썽 빨리 가야 쏜디, 저승사자는 뭐하고 안 오는지 몰라."
장자굴 할때가 또 시작했다.
"그 거짓말하지 마시오. 빨리 죽어야 쏜다고 빌면 더 안 온답니다. 죽도 앓을람서..."
"그거 몰랐어, 명정이야, 100살까지 살라고 일부러 그런 것이야."
장자굴 할때의 대답에 모두 박장대소다. 이왕 살았으니 200살까지 사시겠단다. 좋은 세상 만났으니 억울해서 못 죽겠단다. 그래서 반대로 주문을 원단다.

국밥집에 정자했다. 할머니들은 시방이 열 신데 점심을 먹느냐고 마다신다.
운전대 잡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일, 국밥집으로 모셨다. 이리저리 실랑이를 벌이다가 세 그릇을 시켰다. 여섯 명인데, 내가 한 그릇, 다섯 분이 두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도 배가 부르신단다. 소주도 한 병 시켰다. '아침부터 누가 해장하는가니?'
그러시면서도 한 잔씩 들이켜신다. 웃음이 턱에 걸렸다.
노인들이 제일 고픈 것은 밥이 아니라, 말인지 모른다. 당신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정적, 고요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소리, 떠드는 소리가 무작정 좋은 모양이다.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은 훈훈하고 웃음이 넘쳐났다. 그러는 동안 남자들보다 훨씬 더 차별받고 산 할머니들, 이분들이 왜 더 장수하고 행복할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딱 하나, 할아버지들에게는 없는 게 있었다. 그건 정적이었다. 아니,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 이념이 없었다.
한 마을로 시집와서 평생을 같이 산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들도. 지금껏 고생했지만, 이분들보다 더 행복한 세대는 어쩌면 영영 없을지 모른다. 그건 ( )이다.
그들의 수다 속에 마을에 도착했다. 차비를 건네주는 할머니들에게 100년 뒤에 반겼다고 했더니 함박웃음이다. 150년 뒤에는 꼭 밥도 얻어먹어야겠다고 손을 흔들어준다.

기고

'이태석 정신'이 전한 나눔과 공감의 현장



정경미
이태석재단 광주지부장
참배운동 대표

들어진 협치동아리 회원들의 후원으로 서울에서 내려온 동시통역가가 함께 해 줬을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원활한 소통을 이어갔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번 째 강연의 덴마크 자유학교 모은스 고드벨레 교장과 질의 응답이었다. 광주·전남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고, 고민하는 6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시종일관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격의없이 소통하는 가장 인간적인 교장 선생님을 만난 느낌이었다고 고드벨레 교장은 삶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덴마크 자유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참여 교사들은 입시교육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이 답답했지만 참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실천하는 고드벨레 교장의 열정적인 답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재확인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세계적인 통계학의 권위자 코널대 스티븐 스웨거 명예교수의 AI를 주제로 한 세번째 강연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조선대생 20여명이 참여해 자신들의 전공과 관련한 고민을 나누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스웨거 교수는 누구보다 많은 통계 수치를 알고 있을텐데도 쉽게 미래를 속단하지 않고 지나친 AI의 우월함을 언급하며 인간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었다. 또 현상의 본질을 파악해 가장 인간다운 면모와 고유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70대의 노교수인데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며 진심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실력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강연을 개최하며 지난해 가을 이태석 신부를 다룬 '울지마톤즈' 후속 다큐 '부활'을 보고 떨쳐진 토크 콘서트가 떠올랐다. 이날 용봉중 교사가 준비한 '이태석의 삶을 통해 내일을 잇다' 토크콘서트는 스승의 날 대강당에 모인 교사, 학생들, 재단 관계자들 250여명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하모니로 기억된다.
이날 뿌려진 사랑의 씨앗은 이태석재단 리더십 스텔이 처음 열리는 지난 봄 특별한 인연으로 받아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한 여중생이 용기를 내 자기소개서와 울지마톤즈 영화 감상문을 내고 재단 리더십 스텔에 지원서를 냈다. 학교에서는 아이의 학습능력 대인관계 등을 고려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태석재단의 배려로 서울의 입학식에 참여하게 된다.
떨리는 마음으로 입학식장을 찾은 아이는 힘들었지만 적응하려 했고, 큰 환대를 받았다. 그 후 학교 선생님들과 논의 끝에 이태석재단 광주지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찾아가 아이와 소통하고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자유에 도움을 주며 꾸준한 만남을 이어갔다. 아이는 답양 이태석 신부 묘지 참배를 하면서 힘들 때도 더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때는 죽음까지 생각했던 중학교 3학년 아이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이태석 신부의 섬김과 공감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는 이태석재단과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벼랑끝에 몰렸던 한 아이의 삶에 무지개 다리가 생겼다.
앞으로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더 번져나갈기 바란 다.

社說

민심 못 읽어 정치생명 끝날 위기 자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선 경선 후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 이력이다. 이런 화려한 이력의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를 자초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평생 몸 담아 온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한 탓이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당내에선 호응하는 현역 국회의원 한 명이 없고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마저 공개적으로 합류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는 지난 15일 이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선언 철회를 요청했다. 고립무원이다.
국민들의 반응은 더 싸늘하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전 대표의 창당에 대해 응답자(1002명)의 절반 가량이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선 71%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신당에 등을 돌렸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64%가 창당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긍정 여론이 4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정 여론을 앞섰다.
이 전 대표의 창당 선언이 비판받는 이유는 진보진영의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겹겹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여론 지지층이 이낙연 신당을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예측하면서 민주당의 어른이 분열의 정치를 한다니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창당 명분 또한 없다.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민주당을 버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전 대표는 평생을 민주당과 호남의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정치를 해왔다. 이런 이력이 민심을 잘못 읽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창당 선언은 민심을 잘못 읽어 자초한 일이다. 그런 만큼 어떻게 투비론장을 다시 건너올 지도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에 독감까지, 겨울 건강 관리 유념해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이를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주 동안 광주에서 4003명, 전남에서 4921명 등 모두 890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는 현재 4급 감염병으로 하향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오한, 근육통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고 치명률은 3.4% 수준으로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
여기에 겨울철이 되면서 독감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47주차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은 35.6명을 기록해 2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매주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코로나나 독감을 겨울이면 으레 유행하는 감기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의료진들은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큰 고생을 하게 되는 만큼 조기에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코로나와 독감을 먹는 약이 다르고 기저질환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병원 진단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코로나 19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 조기 검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은 내년 3월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 될 수 있으니 겨울철 만연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無等鼓
우리에겐 친숙한 문화재(文化遺産)라는 명칭은 1960년 제정된 '문화재 보존 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듬해 문화재 관리국이 발족했고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재가 법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에 고적조사과를 신설해 문화재 개념을 도입했다. 고적조사과는 문화재로 분류되는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 일제는 명칭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격하했다. 일제는 자국 문화재를 각각 '국보'와 '사적'으로 지정해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대신 '보물'과 '고적'이라는 한 단계 격이 낮은 용어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영어로 'Cultural Property'라는 명칭으로 불린 시기는 미 군정기다. 'Cultural Property'는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에 등장해 국제적인 용어로도 사용됐다. 현재는 '유산'(遺産·heritage)이 문화재를 지칭하는 국제적 보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유산을 재화의 가치로 파악하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5월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돼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이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각종 법령에 포함된 문화재라는 용어도 유산으로 대체된다.
최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국가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속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활인받을 수 있는 '케이 헤리티지(K-Heritage) 패스(가칭)'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존 보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유산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계기를 마련할 때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